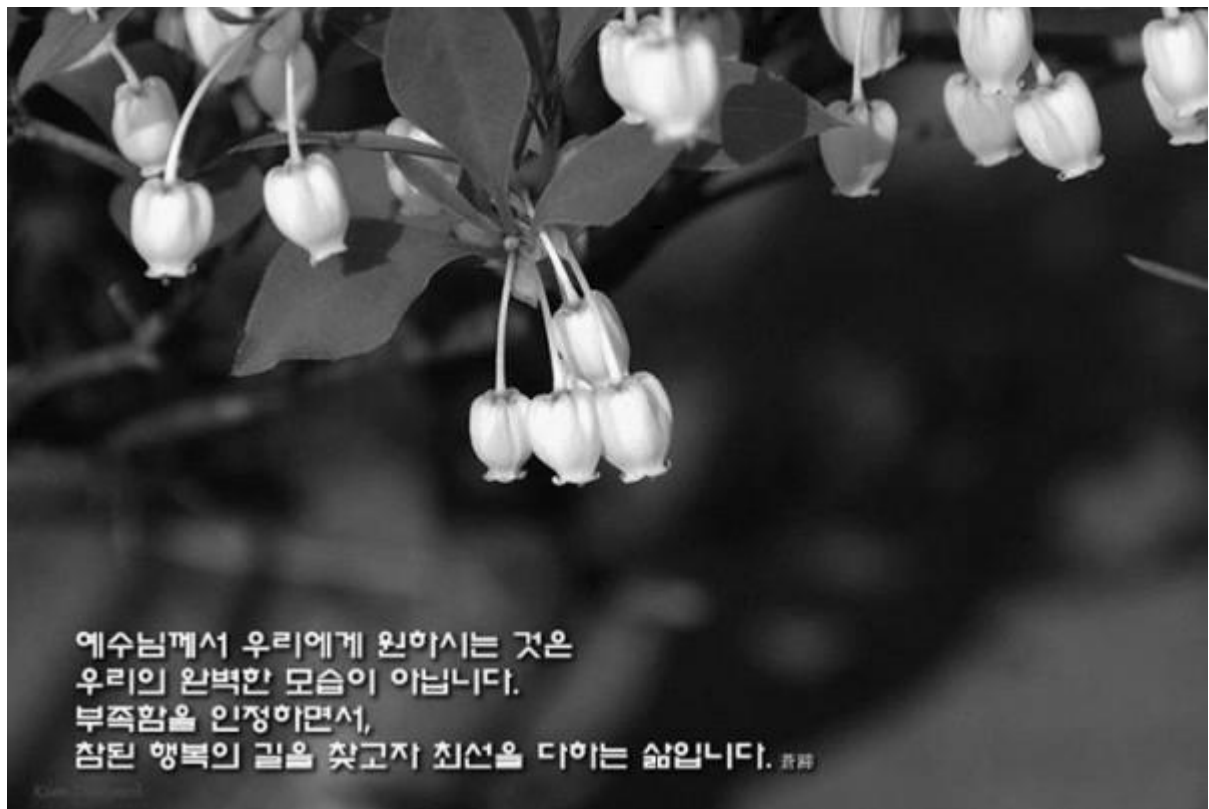


만남

2021년 4월
통권 195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인생의 안내서인 성경-----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평화가 너희와 함께-----	4
교리	교리 톡톡-----	7
보물 창고	영화소개, 저 산 너머-----	10
영적 상담	-----	12
슬기로운 신앙	부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14
축일과 전례	-----	17
함께 나눠요	-----	18
헌납금 납부자 명단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4월 기도지향》

❖ 보편 지향: 기본권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체제에 대항하여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에서도, 기본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의 안내서인 성경

성경은 하느님께서 보내 주신 인생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소비자에게 제품과 함께 보내는 것이 제품 설명을 담은 매뉴얼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사용자 편람’ 정도가 됩니다. 자동차나 컴퓨터, 냉장고 등 조금만 복잡한 물건을 사면 사용자 편람이 동봉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면 그 책자 속에는 자동차의 성능, 규격, 사용법, 정비수칙 등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서의 지시대로만 사용하면 자동차를 고장 없이 최상의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시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반드시 사고를 당하거나 고장을 일으킵니다.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선생님은 새 자동차를 구입한 후 엔진 오일을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사용했다가 결국 엔진이 고장 나 자동차를 폐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용자 편람’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매뉴얼대로만 살면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용자 편람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자세히 알려 주셨습니다. 즉 성경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 주는 책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에서 캄캄하고 절망스러울 때 빛을 비추어 주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꿈과 희망을 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105).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훌륭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성경 교육 방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겨우 사물을 보고 무엇인가 분간하기 시작할 때 성경의 겉표지에 꿀물을 발라 아이가 그것을 빨아먹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꿀물이 달듯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의 영혼에 달고 너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준단다. 그러므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읽고 사랑해야 한다.”고 일러준다고 합니다.

성경을 자주 읽고 묵혀있는 보물을 캐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마음 안에 은총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 삶을 잘 이끌어주는 등대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24-29)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34장 “거룩하다 부활이여”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죽음을 이기신 주님! 저희도 당신의 은총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 ❖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20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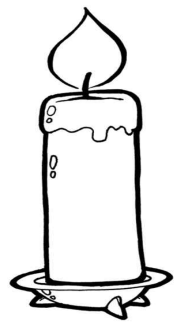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 20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신앙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란 달힌 것을 여는 것입니다. 달힌 채 머물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적당히 유지하고 사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놀라 움찔거리고, 신기해 어리둥절해하는 상태가 평화, 이런 예수님의 평화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덧붙여, 평화는 참 아픈 것입니다. 보는 게 아픕니다. 예수님의 뚫린 두 손과 옆구리를 통해 평화를 이해하기가 참 낯설고 겁납니다. 죽음의 흔적을 통해 평화를 볼 수 있다는 건 가치전도를 넘어서 가치전복에 가까운 일입니다.

모든 게 기존 인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는 ‘뛰어넘는 것’이어야 하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덤벼드는 용기와, 서로의 갈등 속에 용서를 주고받는 지난한 여정을 통해 예수님의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토마스는 이 여정의 증거자이자 표징적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토마스는 뛰어넘기를 주저했습니다. 저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손이 뚫리고 옆구리가 찢어진 예수님의 고통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이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통해 토마스는 더 이상 죽음의 현실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느님으로 새롭게 만난 세상에서 토마스는 믿는 이로 거듭납니다.

토마스의 뒤를 이은 우리는 더 큰 과업을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순수한 믿음, 보이지 않는 분을 늘 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갈 전적인 믿음에 우리는 던져져 있습니다. 토마스보다 더 멋진 신앙인의 세계가 우리의 지금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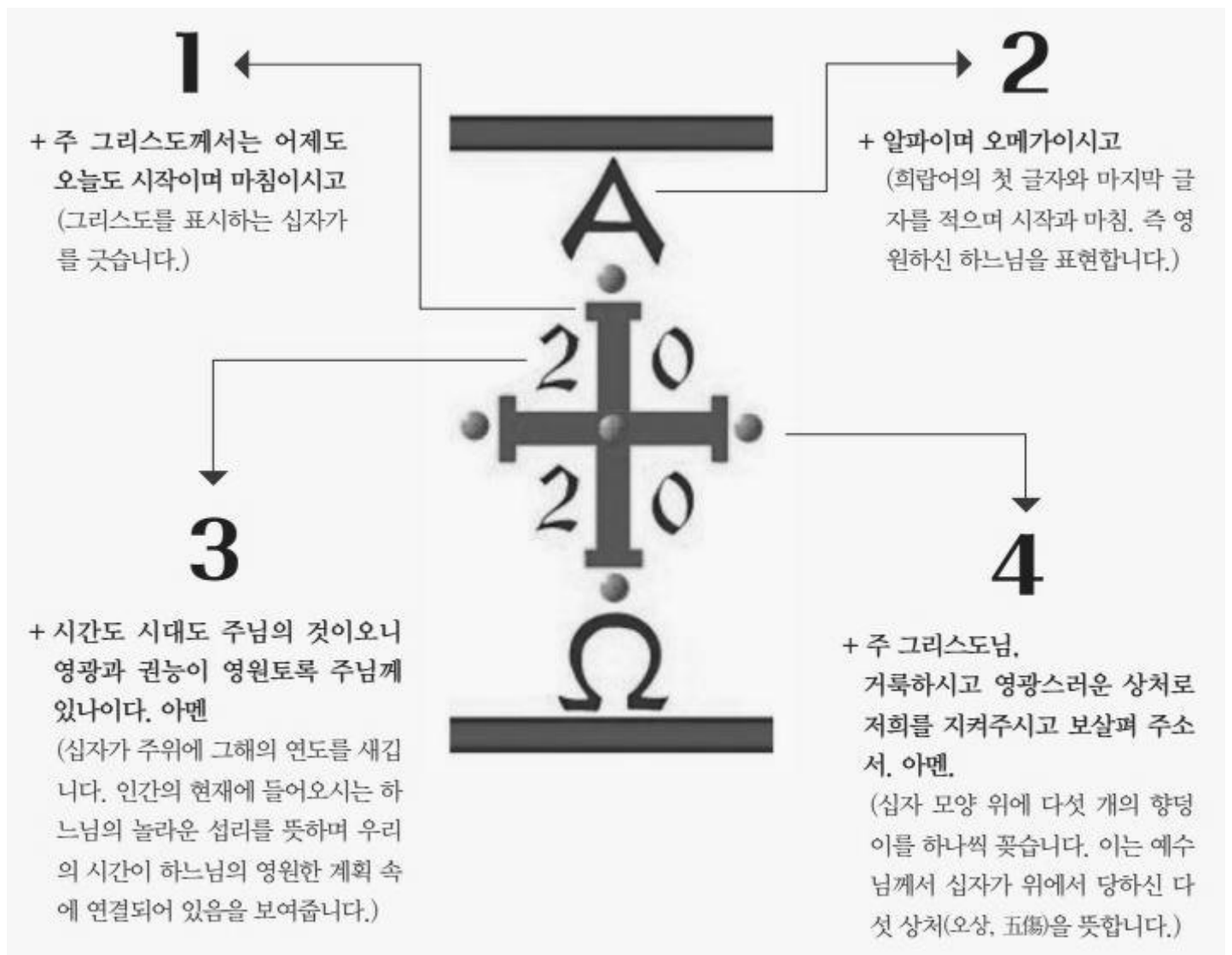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34장 “거룩하다 부활이여” 3절과 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4. 부활초의 상징과 의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초는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무덤의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와 세상의 모든 어둠을 없애시는 빛이심을 드러내는 표상입니다. 이 부활초는 파스카 성야 때 모든 교우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룩하고 성대하게 축복하며 부활 시기의 모든 전례 가운데 타오르게 됩니다. 부활초가 지닌 상징들과 의미들을 부활초 축복 기도문에 따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제는 파스카 성야 예식 중 새 불에서 파스카 초에 불을 댕기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님, 이 빛으로 저희 마음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며 가장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역시 죽음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5. 육신의 부활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육신의 부활이란 죽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인간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으며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영혼만 부활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도 초세기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을 악의 원천이며 죄로 가득한 덩어리로 보면서 육신은 부활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도 가짜 육신을 취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부활을 교회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맞서 우리의 부활이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의 전인적인 부활, 육신까지 포함한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육신의 부활은 현재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육체가 단순히 재생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997항을 보면 “육신과 영혼의 분리인 죽음으로 사람의 육신은 썩게 되지만 그의 영혼은 하느님을 만나, 영광스럽게 된 그 육신과 다시 결합되기를 기다린다.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전능으로, 예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 육신을 우리 영혼에 결합시키심으로써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육신에 돌려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부활은 하느님께서 선물로 내어주시는 영적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전혀 무관한 어떤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마음을 모으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요한 5,29)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6. 부활 시기의 풍습

주님 부활 대축일과 이어지는 50일간의 부활 시기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가장 큰 축제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나누고 기념하는지 주요한 풍습들과 그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의미	유래
부활달걀 	•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상징 • 껍질은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머무르셨던 바위 무덤을 상징하고 흰자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노른자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	• 유래에 관한 다양한 전설이 있는데 10세기 이집트 그리스도교인 사이 풍습이 발견됨 • 선물로 나눠 받는 것은 17세기 수도원에서 예쁘게 채색한 달걀을 서로 나누는 풍습에서 시작되어 널리 전파되었음
토끼, 양 모양 과자 초콜릿 	• 어린양 모양의 과자나 초콜릿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요한 1,29)이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때 부활의 깃발이 함께 그려져 있음 • 이교 문화 안에서 풍요로움을 상징했던 토끼는 교회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짐	• 중세 시대 신자들은 양, 달, 토끼 등 짐승 모양의 빵과 과자를 만들어 부활 음식과 함께 축복을 받고 나누어 가짐 • 토끼와 관련된 지금의 부활절 풍습은 15~16세기 독일에서 유래되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풍습을 이어가고 있음
엠마오 소풍 	•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루카 24,13-29)를 연상하게 하는 소풍으로 부활 팔일 축제 내 월요일에 기도와 성가를 하면서 가까운 산야를 찾아가는 영성적인 소풍	• 독일 남부에 아직도 남아있는 풍습 • 우리나라의 경우, 본당 또는 수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심을 위한 소풍을 다니고 있음
부활카드 	• 성탄 카드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기쁨을 주고받고자 부활에 걸맞은 인사말을 상징들과 함께 주고받는 카드	•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여러 다양한 나라에 전파되었음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이 말 안에는 기쁨과 희망의 선포뿐 아니라, 책임과 사명에 대한 선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케이크나 부활 달걀을 나눠 먹고 파티를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 파티이기 때문에 좋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 축제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사명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 영화소개 - 저 산 너머(최종태 베드로 영화감독님)



영화 <저 산 너머>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오세암’ 등 수많은 동화책을 쓰신 정채봉 작가님은 1993년,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을 소재로 한 동화 <저 산 너머>를 소년한국일보에 연재하였습니다. 집필에 앞서 정채봉 작가님은 김 추기경님과 함께 추기경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경북 군위 옹기골 마을로 추억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추기경님께 직접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재를 마친 후 책 출간을 위해 찾아온 정채봉 작가님께 김수환 추기경님은 ‘지금은 남 보기 민망하고 부끄러우니 나 가고 난 뒤에 책으로 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동화 <저 산 너머>는 정채봉 작가님과 김수

환 추기경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신 이후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추기경님이 선종하시고 11년이 지난 후에 영화로까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릴 적 이름은 순한이었습니다. 순한의 아버지는 평생을 가난한 떠돌이 옹기장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병고 끝에 돌아가시게 되자, 홀로 남은 어머니가 행상을 다니며 힘겹게 늦둥이 아들형제 순han과 동han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생처음 사제 서품식을 보게 된 어머니는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어떤 소명을 느끼고 두 어린 아들에게 신부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늦둥이 두 아들의 마음 밭에 천주님의 씨앗이 심어졌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동han은 순순히 어머니의 뜻을 따르지만, 순han은 마음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han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살아생전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기록을 찾지 못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 김 추기경님의 본가인 광산김씨 종친회는 오랜 시간 조사 작업 끝에 마침내 추기경님의 뿌리를 밝힐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머니가 늦둥이 두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바랬던 것도 바로 그 뿌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신 후 추기경님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몇 작품 있었지만, 본격 극영화는 <저 산 너머>가 최초입니다. 추기경님은 사제가 되시고 온 생애를 가난한 이웃들과 군사독재와 산업화를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추기경님의 평소 염원처럼 영화 <저 산 너머>에서도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소중한 아름다운 가치들이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영성(靈性)’과 ‘동심(童心)’과 ‘자연(自然)’입니다.

생텍쥐페리는 1943년에 발간된 ‘어린 왕자’의 서문에 어른을 위한 동화책이라 말합니다. 영화 <저 산 너머> 또한 어른을 위한 동화입니다. ‘어린 왕자’가 2차 대전 중 발간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희망이 되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혼돈과 절망 속에 빠져있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화가 모든 이들의 위로와 희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신령성체 기도]

저의 예수님,

저는 당신께서 제대의 거룩한 성체 안에 참으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오며 제 영혼 당신을 갈망하나이다.

지금 저는 당신을 영할 수 없사오나 제 마음에 영적으로 오소서.

당신이 지금 제게 오시니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받아 모시고

저 자신을 당신께 합하나이다.

제가 당신으로부터 결코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멘.

※ 교황님께서는 미사에 물리적으로 참례하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신령성체(영적 영성체) 기도를 바치자고 하셨습니다.



질문

요즘 트라우마란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 상태를 뜻하며 치료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트라우마는 참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갖는 ‘심리적 외상’입니다.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상처와 달리 아주 심각한 심리적 상처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을 정신의학에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에 놓였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그 참혹한 사건이 잊히지 않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생생하게 과거의 현장 속에 다시 내동댕이쳐져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무책임하게 “다 잊고 새로 출발해. 과거는 다 흘러간 거야. 고통이 인간을 성숙하게 한다잖아.”라며 위로가 되지 않는 무책임한 말을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쏟아 붓습니다. 이런 말들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비롯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가벼운 심리적 고통을 말합니다. 이러한 힘겨움은 잘 견디면 약이 되기도 합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것이지요. 치료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람을 쐬러 나간다가나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와 잡담을 해도 없어집니다. 스트레스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한 상태가 아니기에 약간 무너진 부분을 다시 손을 보는 정도로 고칠 수 있지요.

그러나 트라우마는 다릅니다. 트라우마는 심리적인 상태가 전반적으로 붕괴한 상태, 소위 ‘심리적 쓰나미’를 당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고 회복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신경증적인 질병이 아니라 심리적 재난 상태입니다.

이런 트라우마는 전쟁을 겪은 군인들이 가장 심각합니다.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부상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험한 군인들은 귀향해서도 여전히 마음이 전쟁터에 머물러 있어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를 훨씬 나중에 병으로 인지하고 치료를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터뿐만 아니라 각종 참사 현장과 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대원들, 과거 성폭행을 당한 사람 등 인간의 힘으로 감내하기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은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트라우마를 겪은 분이 적지 않습니다. 어르신

들 대부분은 6.25전쟁이라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며, 중년층은 군부 독재정권(광주에서의 학살과 고문 등)으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IMF라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땅덩이에 살면서 정말 인간으로 견디기 어려운 여러 심각한 재난을 겪었으니 아이들이 ‘헬 조선’을 외칠 만도 한 것입니다. 거기다 아직도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고, 수시로 전쟁 분위기마저 고조되니 한국인 전체가 트라우마 환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심리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이 가진 심리적 문제들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성으로 해결하기엔 버거운 것이 많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의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선 심리적 과부하가 걸릴 위험성이 큼니다. 그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신의 도움을 청하면서 심리적 과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는 “죽음과 관련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으면 ‘잊어야 한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이 없다. 완료되지 않고 중간에 툭 끊어진 욕구를 마음 안에서 충분히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부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김미정 아네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1코린 15,17).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 곧 죽음에 예속된 인간의 삶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바탕이며, 핵심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죽을 운명인데, 죽은 뒤 다시 살아나리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죽은 뒤의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현세의 고통을 보상하려는 것일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선행도 하고, 희생도 하고, 억울한 것도 참을 수 있게 하려면 죽음 이후의 삶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일까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너무 허무하기 때문일까요?

몇 년 전 벨기에에서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양한 종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종교적 예식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신론자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이생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고, 이생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라며,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무신론자나, 환생을 믿는 불교인이나, 제사를 통하여 돌아가신 조상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유교인과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탕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과 삶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

교회에서는 부활이 예수님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또한 부활은 죽음 뒤의 삶에 대한 믿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미 이생에서 새로운 존재양식으로, 여러 형태의 죽음을 극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증언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일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1코린 15,3-8).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으로 변화된 제자들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현세에서 온전하지는 않으나, 죽음 이후에 올 부활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근원임을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난의 길을 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나타나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근동의 여러 지역에 설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근원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읽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 삶을 통해서 이미 하느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복음서를 통해 고백합니다.

부활은 회개와 새로운 삶의 동기다

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20,31).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전기양식으로 세밀하게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성숙화된 신앙으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건의 의미를 식별하여 선포하고 고백하고자 한 것이 바로 복음서를 쓰게 된 목적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형언할 수 없는 이 신비를 경험한 제자들의 첫 마디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열정으로 가득 찬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것이 끝장이 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간 제자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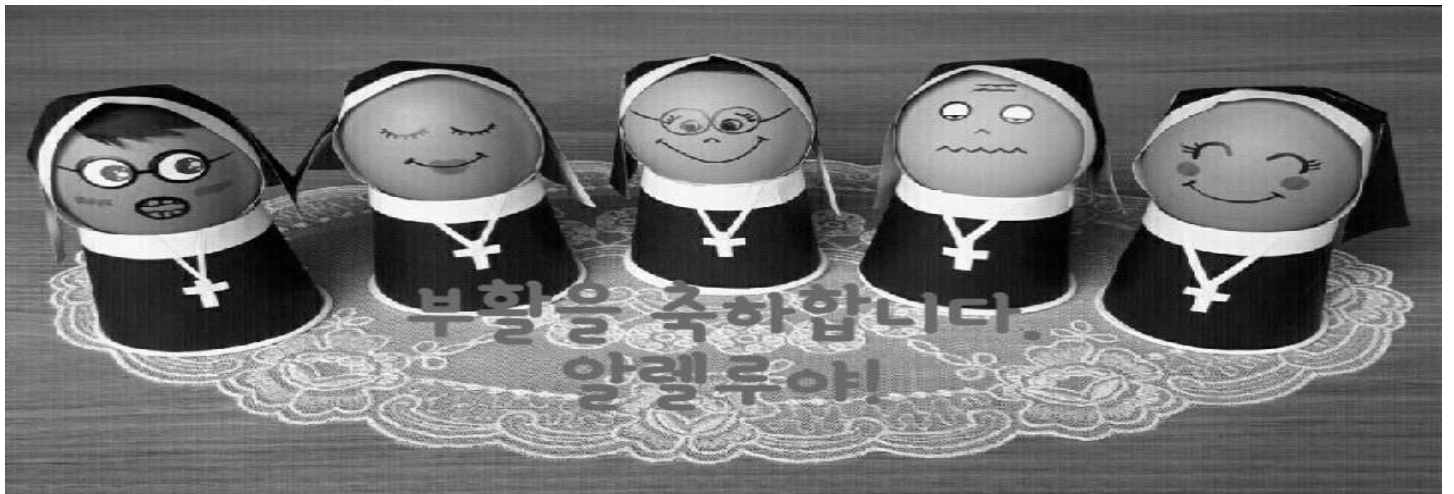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증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현세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도, 현 생명의 무한한 연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하느님의 존재 안에서의 삶, 새로운 존재양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회개와 새로운 삶의 동기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서는 죽음을 극복하신 분으로 우리 삶의 근원이 되고자 하십니다.

부활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

윌리엄 배리 신부님의 다음 글이 부활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내적인 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우울하고 두려운 중에도,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강한 힘이 여러분 안에서 버터나가게 해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없이 베푸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랑이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들의 처지와는 달리 밝은 빛을 지니고 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간 마음속의 증오, 탐욕, 불의, 폭력들의 힘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힘들이 어떻게 억제되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결코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밝은 빛, 인간의 폭력과 증오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숨결,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숨결을 체험합니다.”(「하느님과 그대」 중에서).

부활은 죽음의 삭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형태의 죽음을 극복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부활 없이는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초대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멸하는 인간의 조건을 벗어나셔서, 죽음의 법칙에 더 이상 예속되지 않는 상태, 곧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에 동참할 수 있음을, 곧 구원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 4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일	율리아	김성은	24일	보나	이보나
11일	젬마	이수빈	25일	마르코	김희 강석진
13일	마르티노	김성일	29일	카타리나	이화자 정혜경
15일	아나스타시아	박지훈	29일	카롤리나	김계희
16일	벨라데타	김(강)신자 최성자 오옥수	30일	소피아	김주현 이명희

❖ 4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일	율리안나	송윤아(H)	21일	안셀모	이철민(H)
11일	젬마 갈가니	이혜경(H)	29일	카타리나	박진경(H) 고희경(B)
12일	비시아	강윤진(H)	30일	소피아	박영희(H)

❖ 4월 성가번호 ❖

4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11일	130	25	496	134
18일	133	342	180	135
25일	128	212	170	55

❖ 4월 미사 전례 봉사자(독서) ❖

- ▶ 4월 11일 일요일 :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 ▶ 4월 18일 일요일 : 청년회
- ▶ 4월 25일 일요일 : 최성자(벨라데타), 김매자(베로니카)

♥ 코로나로 무관심해진 50주년 행사(김진호 프란치스코)

오늘은 2월 달의 세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날이다. 벌써 봄이 찾아오기라도 한 듯이 기온은 16도를 가르치는 함부르크에서 보기 드문 화창한 봄 날씨를 만나고 있기에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다. 나에게 주일은 하느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주일미사는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인가는 이유도 되지 않는 핑계로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날에는 어김없이 크게 후회를 하게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삶은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행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느님을 만나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되면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시간에 늦지 않도록 서둘러 출발하게 된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성당에 도착하면 감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성호경을 그으며, 오늘도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미사봉헌을 할 수 있는 은총과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사가 시작된다. 미사가 끝날 무렵 공지사항시간에 3월 만남월보가 나왔으니, 한부씩 가져가라는 신부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반갑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미사가 끝나고 만남월보를 받아들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읽다가 보니 어느새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다.

순간 무엇인가를 잊어버린 것처럼 서운한 마음에서 두 눈을 비벼가며 몇 차례 확인을 해보았지만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끝까지 만날 수가 없었다. 내가 찾고 있는 그것은 바로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50주년 기념행사준비 광고란이다. 지금까지 매달 전해지고 있던 광고란이 보이지 않는 순간 웬지 서운했다.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첫 번째로 나를 찾아온 것은 무관심이란 단어였다. 동시에 생각난 것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지되고 있었는데 본당가족들은 이 광고란을 어떠한 생각으로 읽으셨을까 하는 질문들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 나 자신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생각해보니 이제 행사 날은 겨우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행사 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걱정만 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그래서 여기 만남월보에 글을 쓰게 되었으니, 이해하고 읽어 주시고 더 많은 관심으로 다함께 기도하고 도와가면서 50년의 역사를 하느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 우리들의 정성을 봉헌할 수 있도록 교형자매 여러분들과 지방공동체 가족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처음이 되고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50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자비와 평화와 축복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50주년 기념행사가 하느님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 모두가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50년의 추억들을 하느님께 영광으로 봉헌하게 하여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헌납금 납부자 명단 ❖

♥ 1월과 2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현금

강신행, 김경미, 최현봉,

* 계좌

권말숙, 김대현, 김선애, 김치수, 김진호, 김효정, 송문규, 신옥희, 이명원, 이성원, 이정훈, 이석우, 정정숙, 최종금, 최아나벨, 허두옥, 허길조,

♣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월 28일 자 통장 잔액은 31,518,87 유로입니다(배구대회 잔액 4,449,43 유로 포함).



❖ Hamburg 공동체 소식

1. 성삼일과 부활 미사는 락다운 연장과 봉쇄 추가 조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에서는 전례를 함께 봉헌하지 않습니다. 신부님은 개인적으로 미사와 전례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온라인으로 방송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미사를 언제 다시 시작하게 될지는 나중에 안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부활 시기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 4월에도 신심단체 모임은 없으며 미사 후 커피 나눔도 없겠습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4월 3일 브레멘 공동체 미사는 부활성야인 까닭에 락다운 연장과 관계없이 없겠습니다. 오스나브뤼크와 하노버 공동체 역시 4월 18일까지 락다운이 연장 되었으므로 미사가 없겠습니다.

2. 오스나브뤼크 공동체의 최랑(로사) 자매님과 벤야민 줌머 가정의 자녀 엘라 줌머의 세례식이 3월 13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축하드리며 영육간 건강을 기원합니다.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 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Q.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도우미 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도우미 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도우미 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4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공동체 전례 X
2	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공동체 전례 X
3	토	부활성야		공동체 전례 X
4	일	주님 부활 대축일, 청명		
5	월	부활 팔일 축제 내 월요일, 식목일, 한식		
6	화			
7	수	보건의 날		
8	목			
9	금			
10	토			
11	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12	월			
13	화			
14	수			
15	목			
16	금			
17	토			
18	일	부활 제3주일		
19	월			
20	화	장애인의 날, 곡우		
21	수			
22	목			
23	금			
24	토			
25	일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법의 날		
26	월			
27	화			
28	수			
29	목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동정 학자 기념일		
30	금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